On September

SANPAYANG TIMES

산파양 **학**교에 온 **한국인**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그분들이 오셨다. - 중간평가, 그 이후

소원을 말해봐 '로이끄라통'
- 찬란한 빛의 축제 속 불편한 진실.
-샌디탄생일, 학교에선 무슨 일이?

치앙라이 YMCA에서의 하룻밤
-CLP,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걸어서 버마로, 걸어서 태국으로

나는 너희가 주말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생각나눔 -그래요 생각을 나눠요.

산파양 학교에 온

한국인선생님?

산파양 학교에 온

한국어선생님!

한국어 어렵지않아요.

저희가 공통으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바로 한국어! 랍니다.
강남스타일 같은 K-pop 열풍이 이 곳에서도 뜨거워서 아이들이
새로 배우는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잘 따라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흥미가 있는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배우고 싶은 아이들은
집중을 잘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지루해해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게임이나 노래, TV 드라마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둥글게 둥글게 ~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3명!!!
게임을 통해 한국노래도 배우고,
자연스럽게 숫자도 익히면서
즐겁게 즐겁게 수업 하니
재미도 쑥쑥 실력도 쑥쑥!

굼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1

한국어도 가르치고, 각자의 특기를 살린 수업도 하고 있답니다.

샌디는 체육선생님

25년간 모든 운동을 섭렵하신 국민체조 샌디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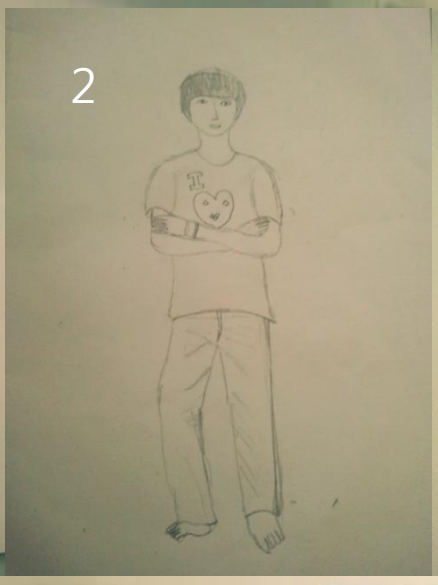
락은 미술선생님

24년간 밥도 안 먹고 그림만 그려오신 락선생

YMCA RaonAtti KB

굼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2

다음 그림 중, 샌디를 고르시오.



락의 미술수업에
모델 섭외당한 샌디
무보수 비정규직

쉬어가는 깜짝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은 h1004326@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솔로 샌디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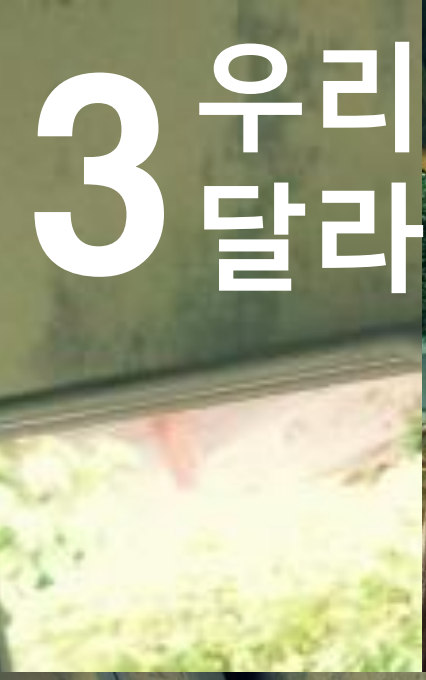
매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교문 앞에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눈답니다.

1 우리학교가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조회시간마다 '오늘의 한국어' 시간이 있어요.

2 우리학교가 달라졌어요

3 우리학교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만든 종이를
학생들과 곳곳에 붙이며

물 아껴쓰기
캠페인을!

이것이 교육이다1

산파양 학교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학교에서 일일마켓이 열립니다.
일일마켓은 임의 엄마인 몬타나 선생님의 교육과정 중 하나로
아이들이 직접 과일이나 직접 만든 음식, 물건을 준비해 와서
사고 팔며 경제 구조를 직접 체험해보는 산교육의 장이에요.

돈은 어디로?

수익금은 학교에 기부하거나
학급비로 쓴답니다.

이것이 교육이다1

저희도 이 활동에 직접 참여했어요!
학교에서 한국의 작은 대사관(?)으로써
이번 기회에 한국의 음식도 맛 보여 주고,
수익금은 CLP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지요.
저희가 만든 음식은 화채!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고마웠어요.
오전에 중간평가가 있어서,
이번에는 간단히 화채를 만들었지만
다음 마켓에는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랍니다.

CLP 가 무엇인지 궁금하신분들은
뒤 쪽에 있는 '치앙라이에서의 하룻밤' 편으로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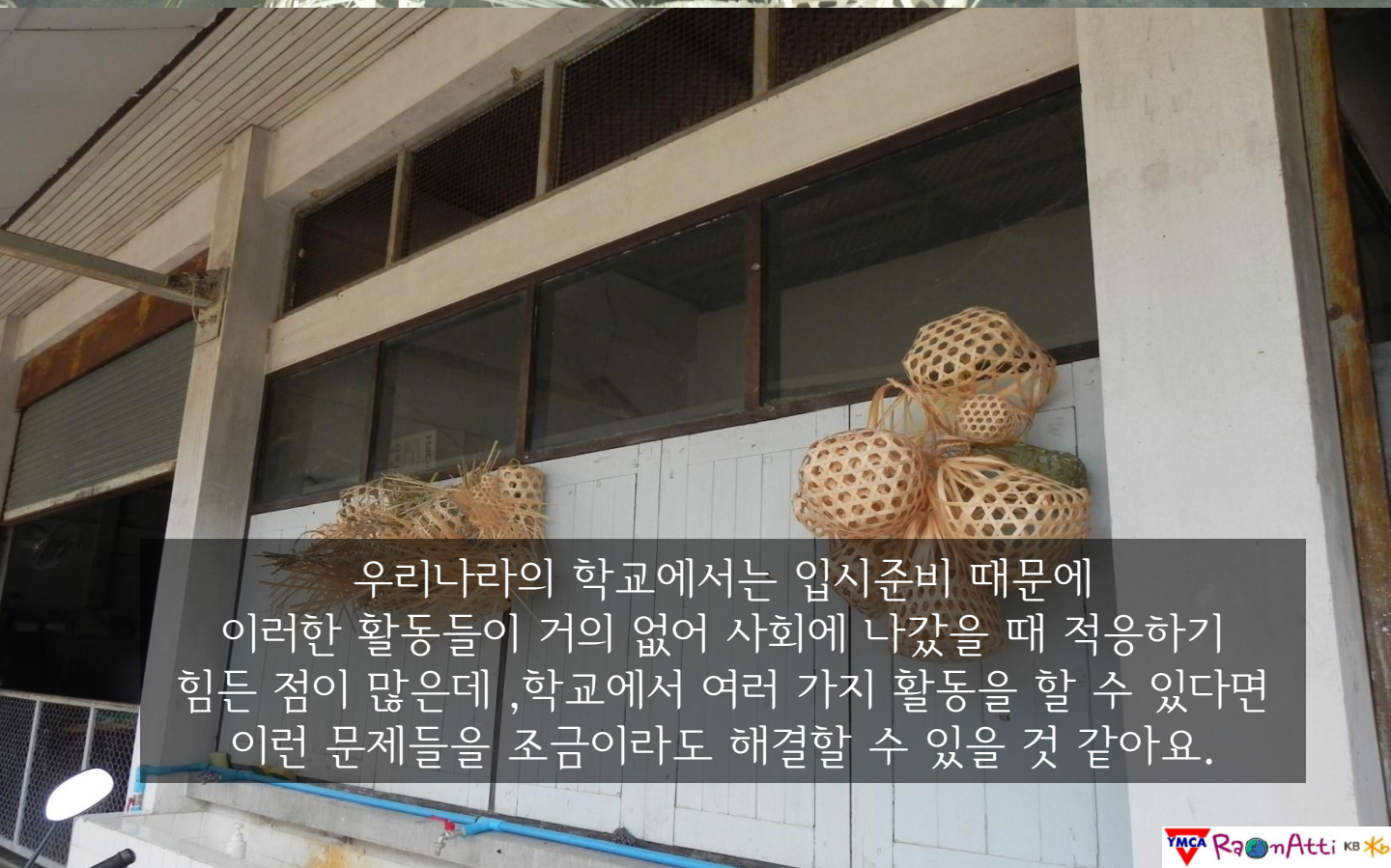
이것이 교육이다2

치앙마이에는 42개의 학교가 모여 각 학교마다의 활동들을 전시하는 교육 콘테스트가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꾸며서 팔기도 하고,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공유하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발전을 돕고 경제개념도 파악할 수 있는 활동들을 장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연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교육이다2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참 잘하죠?
히.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입시준비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이 거의 없어 사회에 나갔을 때 적응하기
힘든 점이 많은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교육이다3

기숙사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교 곳곳에서
텃밭 가꾸기, 나무심기, 천연과일주스 만들기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기숙사에 살고 있는 임도 주말마다 함께 하고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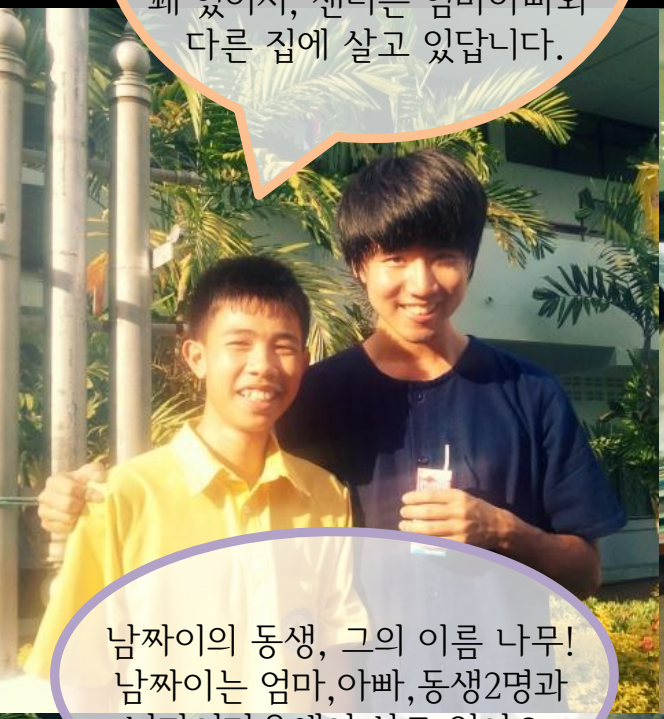
이것이 교육이다4

태국의 학교 학생들은
자기의 **전통문화**를 잘 알고 소중히 여긴답니다.

수업시간에도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마을이나 학교에서 축제가 있을 때마다
전통 춤, 노래, 장식품 등을 스스로 준비해 공연을 하곤 합니다.
한국의 학교는 문화교육 보다는 영어,수학 등 입시위주의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전통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런 점은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샌디의 동생, 그의 이름 맥주
넝부아마을에서 동생과 살아요.
태국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집을 두개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서, 샌디는 엄마아빠와
다른 집에 살고 있답니다.



임의 엄마, 그녀의 이름 몬!
임은 학교의 기숙사에서 엄마,
그리고 33명의 학생들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남짜이의 동생, 그의 이름 나무!
남짜이는 엄마,아빠,동생2명과
넝까이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락의 동생, 촘푸!
락은 할머니와
동생 2명과 함께
산파양 마을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 분들이 오셨다.

중간평가 그 이후

중간평가 팀을 소개합니다.

Off the record talk!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태국 아띠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중팀소

중간평가 팀을 소개합니다.

와이파이 마스터 이윤희 국장님
"여기 와이파이 되니?"

푸근푸근 최현욱 간사님
국장님 왈“최 간사님한테
먹을거주지마세요"

촌.철.살.인 정동민 간사님
"어? 지연이 살 쪘네?
되게 잘 지내나보다"

첫째날 고해

가정방문을 마치고 저녁을 먹은 늦은 밤, 한국에서 온 세 남자와
태국인이 되어가는 네 명의 라온아띠가 한 방에 모였습니다.
3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된 off the record talk!
태국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우고 있는지, 팀은 어떤지,
라온아띠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태국스텝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월말보고서에 쓸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나니
아~~~~~~~~~~~이래서 중간평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둘째 날
중간활동 보고회

공식적인 중간활동 보고! 저희가 중간까지 달려오면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누고 피드백을 받는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20명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했는데
7분이 오셨어요. 아쉬웠답니다?! 이번 발표를 위해 20장의 영어대본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영어,한국어,태국어 3개 국어와 몸짓 언어까지
총 4가지 언어를 사용했지요. 모 국장님께서 그 전날 이 얘기를 들으시고
20분만 듣고 주무실 거라고 선전 포고를 하셨었는데
다행히 30분 듣고 아주 살짝 주무셨어요 :)
저희의 힘겨운 영어를 들어주셔서 정말 땡큐베리머치 감사합니다.

중간평가,그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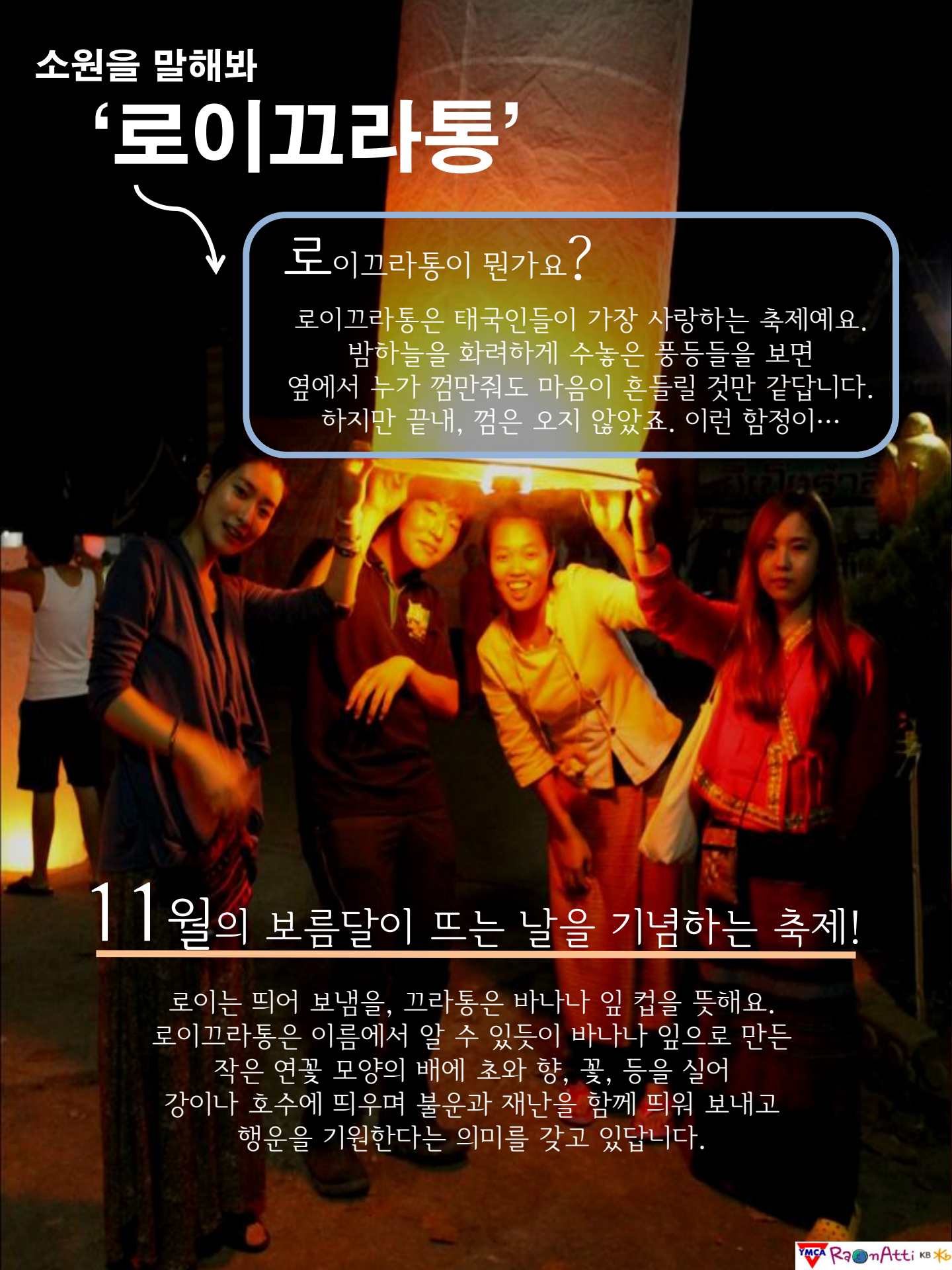
중간평가 후 팀의 문제에 대해 들었을 때의 느낌이 어땠어요?

중간평가 때 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팀원간의 의사소통이나 이해에 대한 거요. 따끔한 충고 감사합니다 :)

샌디: 우리가 초심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국내훈련에서 했던 것처럼 꾸준히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락: 사실 국내훈련 때도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노력을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남짜이: 따끔한 충고들이 고마웠고 홈스테이 때문에 흩어져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였어요.
임: 내가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뜨끔했어요. 조금 더 이해하고 소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는 8기 태국팀, 친해지길바래!
한국가서도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되기.
그렇다고 저희가 안 친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얘기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려고요.
여태까진 각자의 목표만 있고 팀의 목표가 없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더 집중한 것 같아요.
거창한 목표는 아니지만
한 뼘 더 가까운 태국팀을 만들기 위한 목표랍니다.
또 회의는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회의시간을 생각 나눔으로 바꿨답니다.
그리고 학교에선 휴대폰 금지! 이것도 잘 지켜가고 있어요 ㅋㄷ

P.S.
라온아띠에 충성 서약을 한
"Damith"
아마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이름 정.동.민.
저희가 출국 전날 썼던 편지는 어디 있나요?
오기로 했던 메일은 왜 안 오나요?
저희가 이런 말을 꺼낸 이유가
대단히 궁금하실 것 같아 말씀 드립니다.
메일을 받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메일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드립 죄송해요! 투표합시다ㅋㄷ
투표 하고 싶어요…방콕보내주세요
13시간만 가면 되는데…)



소원을 말해봐

‘로이끄라통’

로이끄라통이 뭔가요?

로이끄라통은 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축제예요.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풍등들을 보면
옆에서 누가 껌만줘도 마음이 흔들릴 것만 같답니다.
하지만 끝내, 껌은 오지 않았죠. 이런 함정이…

11월의 보름달이 뜨는 날을 기념하는 축제!

로이는 띄어 보냄을, 끄라통은 바나나 잎 컵을 뜻해요.
로이끄라통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나나 잎으로 만든
작은 연꽃 모양의 배에 초와 향, 꽃, 등을 실어
강이나 호수에 띄우며 불운과 재난을 함께 띄워 보내고
행운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YMCA RamAtti KB

이것이 바로
끄라통!!!

보통은
바나나잎으로
만들지만,
빵으로 만들어진
끄라통도 있답니다.
좀 더 환경을 생각한
끄라통이라고 해요.

풍등만들기!

락네 집에놀러와서
끄라통 같이 만드는 샌디!

학생들과 함께
끄라통 만들기!

로이끄라통을 위해 …

저희도 학생들과
또는 집에서 가족들과
끄라통과 풍등을 만들며
축제를 기다렸답니다!

샌디는 풍등 만드는 중!

[끄라통 만드는 방법]

-준비물-
손톱, 머리카락 같은 잘라도 생존에 무리가 없는 신체 일부
속이 꽉찬 바나나 나무, 크고 멋진 잎, 예쁜 꽃, 양초, 향,
원한다면 치지직 폭죽 끝

1 바나나 나무를 심어요.
2 바나나 나무를 잘라요.
3 바나나 잎을 가차없이 뜯어요.
4 자른 나무 통을 잎으로 제멋대로 꾸며요.
5 다 된 밥상에 꽃을 얹어요.
6 초와 향을 찔러넣어요.
7 신체 일부를 썰어넣어요.

끄라통 만들기 끝. 참 쉽죠?

이제 **소원**을 빌고, 근처 강에 가서 띄워보내요.
근데 왜 아직도 아무도 껌을 안주나요 -샌디 왈

YMCA RamAtti KB

찬란한 빛의 축제 속

불편한 진실

그리고
로이끄라통 축제에 빠질 수 없는 하나,

불꽃 놀이.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양한 종류의 불꽃 놀이를 즐긴답니다.

정말 아름답죠?

찬란한 빛의 축제 속

불편한 진실

그럼 이건 어떠신가요?
이것도 아름다운가요?

직접 폭죽을
제조하는 모습.
주로 이때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로이끄라통 축제가 있기 전, 많은 사람들에게서
폭죽이 곳곳에서 터지니 조심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죠. 아름다운 폭죽이 왜 위험하다는 건지?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축제가 가까워 오자 곳곳에서 마치 전쟁이 일어난 듯
엄청난 소음과 연기로 가득해졌고, 축제기간 중 마을에서
폭죽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의 아버지도 계셨지요.
아름다운 축제 뒤 이런 불편한 진실도 존재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폭죽은 축제를 좀더 화려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YMCA RamAtti KB

샌디 완끗 특집

샌디탄신일

아름다운 달이
밤을 환하게 비추는
로이끄라통 축제와 함께 맞은
나의 25번째 생일!
기억은 모두 나지 않지만
지금까지 맞았던
24번의 생일 중 이번만큼 풍성하고
기분이 좋았던 생일은 없었고
모든 것이 멋들어지게 어우러진
정말 뜻 깊은 생일이었다.

그는 왜 나무를 심었나?

피폐가 선물해주신
생일 기념으로 심은
나만의 나무, 그녀의 이름
Sandra.

그는 왜 실실 웃고 있나?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했던 것은
팀원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깜짝 생일상과 선물 !!!
"미역국 정말 잊지 못 할거야 "

그는 왜 노래를 불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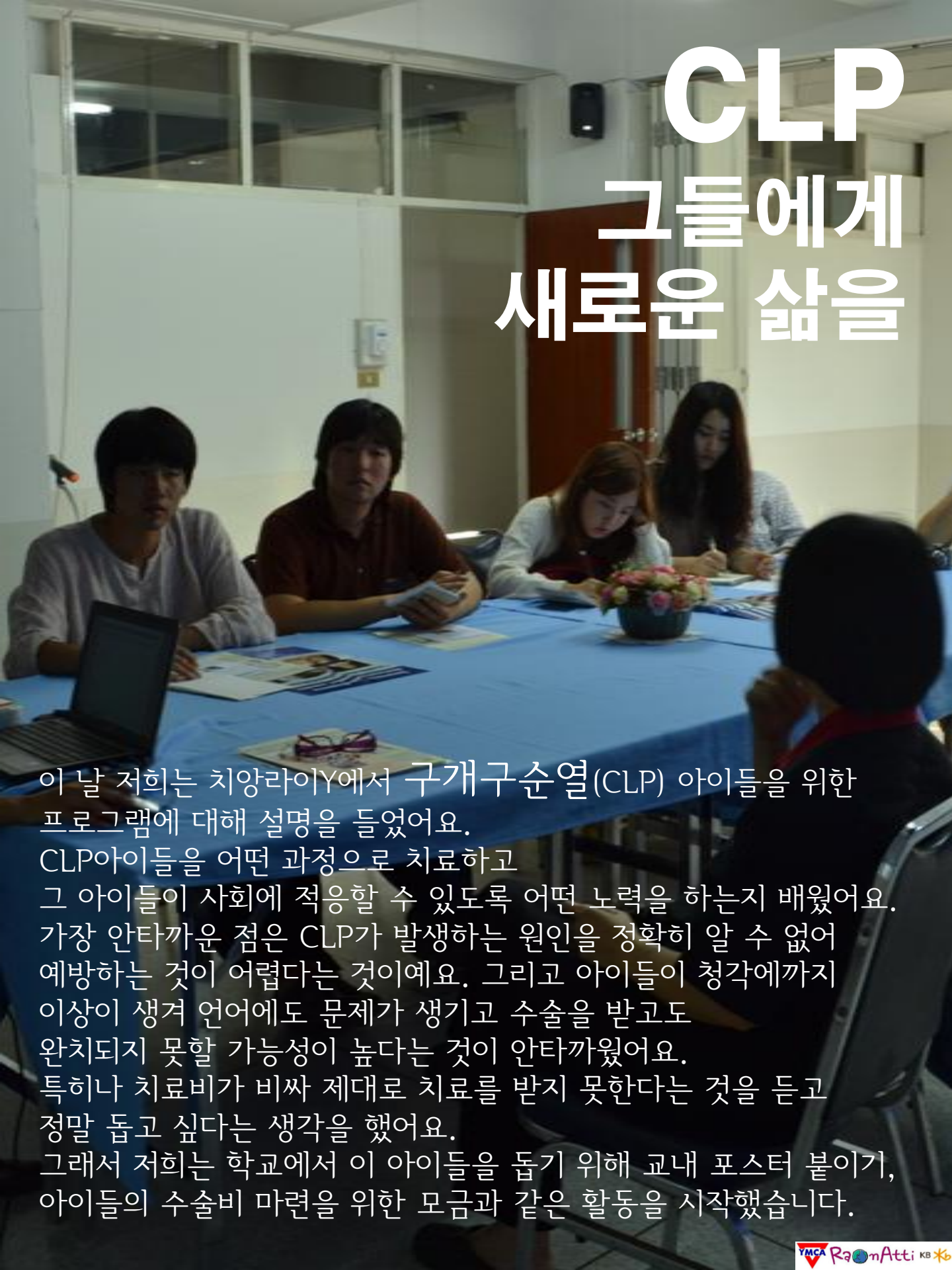
학교행사에서 생일 기념으로
모두들 앞에서 부른
나의 노래 '출발'
그리고 아이들의 답가,
'Happy birthday to you'

P.S. 우리 태국 팀아 !! 나 진짜 정말 진심으로
눈치 못 챘어!! Surprise였다고 ^^

치앙라이 YMCA에서의 하룻밤

전체 관람가

CLP,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비자트립, 걸어서 버마로 걸어서 태국으로



CLP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이 날 저희는 치앙라이Y에서 구개구순열(CLP)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CLP아이들을 어떤 과정으로 치료하고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는지 배웠어요.
가장 안타까운 점은 CLP가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예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청각에까지
이상이 생겨 언어에도 문제가 생기고 수술을 받고도
완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특히나 치료비가 비싸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듣고
정말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 교내 포스터 붙이기,
아이들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모금과 같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CLP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CLP(Cleft Lip, Palate)는 무엇인가요?

얼굴에서 가장 흔한 선천성 기형의 하나로
얼굴이 만들어지는 임신 4~7주 사이에 입술 및 입천장을
만드는 조직이 적절히 붙지 못하거나 붙었더라도
유지되지 않고 떨어져서 생기는
입술 또는 입천장의 갈림을 뜻해요.
발생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치앙라이 YMCA 통계상
태국 북부지역, 라오스, 미얀마 및 중국 남부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며,이 밖에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고 해요.

YMCA RaomAtti KB

비자트립
걸어서 버마로
걸어서 태국으로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버마 2시간 여행기
금 삼각지, 그것이 알고 싶다

걸어서 버마로
걸어서 태국으로

국경을 지나면서 피페에게 버마에서 태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북한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힘들게 버마로 건너온 탈북자들이 또 한 번 힘겹게 태국 국경을 넘어오고,
잡히고.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들을
같은 민족인 북한사람들은 살기 위해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또 국경을 육로로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우리나라도 태국과 같은 반도 국가인데 북한을 넘어갈 수 없어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야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씁쓸했고
국내 훈련 때 오른 소이산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통일을 염원했어요.
하루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마 2시간 여행기

우리가 방문한 버마의 시장은 버마의 국경과 가깝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장이지만,
여기가 베트남, 한국, 미국, 그 어떤 나라라고 해도
믿을 만큼 특색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장 주변에 있는 상가나 집들 또한 프랑스풍이었어요.
잠깐 방문했을 뿐이지만 옆 나라 태국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엔 식민지의 경험유무에 따라 자신의 문화를 지키느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의 시장이나 집들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어요.

YMCA RaonAtti KB

그것이 알고싶다

Golden Triangle을 아시나요?

태국, 라오스, 버마 3국의 국경이 접한 산악지대로 세계의 헤로인을 대부분 생산하는 황금의 삼각지대를 뜻해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버마의 골든 트라이앵글 지대로 '비자트립'을 다녀온 것이지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국경 이곳저곳에서 거리의 아이들, 약(마약, 흥분제 등)을 하는 마피아들, 불법입국 포스터, 성매매를 주선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피폰(치앙라이YMCA)에게서 이곳의 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YMCA의 프로그램들에 대해 들었어요.
마피아들의 세력다툼으로 인한 폭력사태나 마약문제, 거리의 아이들의 문제, 성매매, 불법입국 등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복합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왜 정부는 마피아를 건드리지 못할까? 마피아와 정부의 관계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띠들의
주말이야기
나는 너희가 주말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너희가 주말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락/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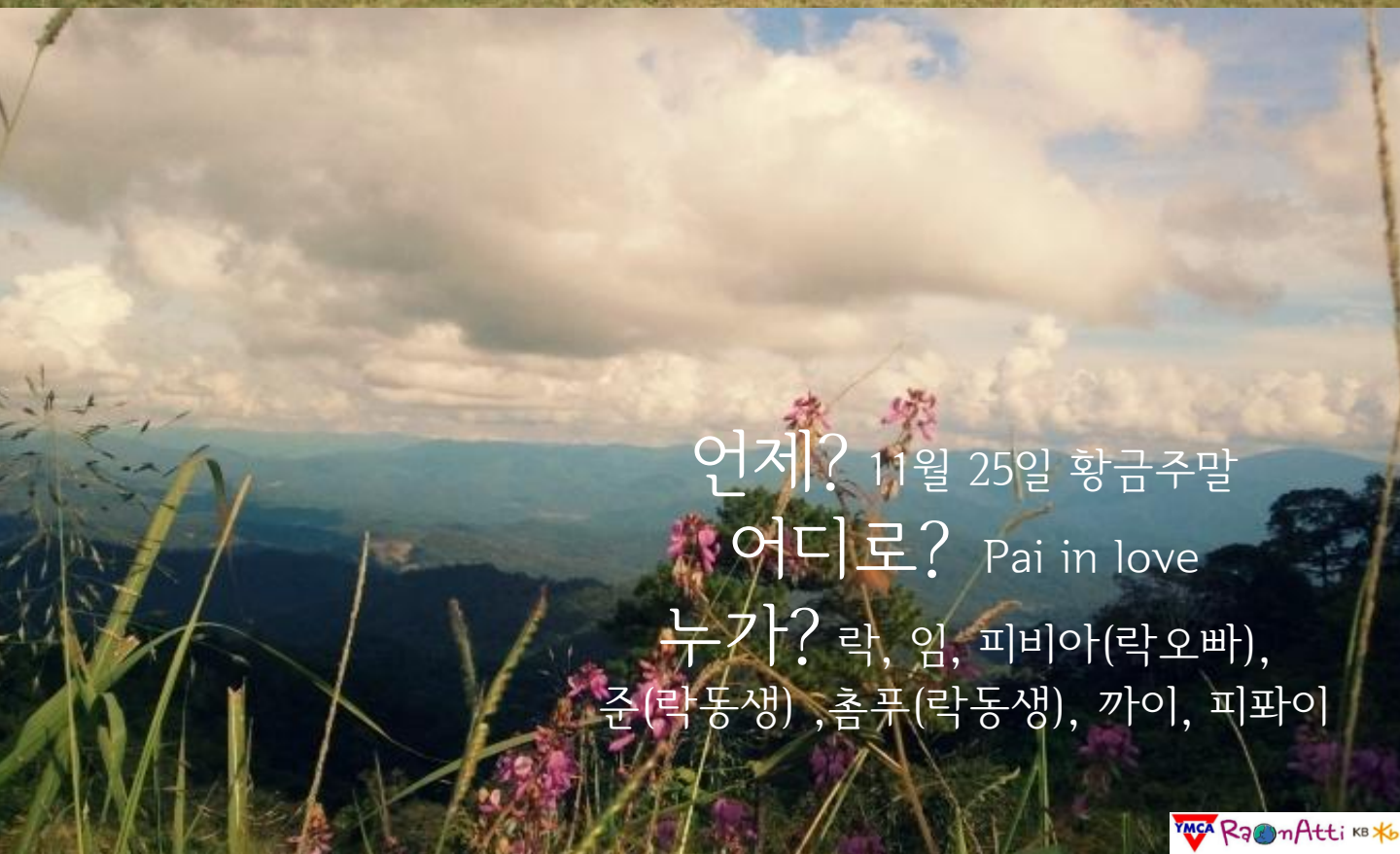
두 여자와 아이들의 주말여행

‘빠이’ 인 러브

논 매는 라온아낙네들

두 여자와 아이들의 주말여행

빠이 인 러브



언제? 11월 25일 황금주말

어디로? Pai in love

누가? 락, 임, 피비아(락오빠),
준(락동생) ,촘푸(락동생), 까이, 피파이

두 여자와 아이들의 주말여행

러브 인 빠이

빠이 여행사에서 일하는 락의 오빠
'피비아'의 제안으로 시작된 빠이여행!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멀어서
새벽 3시부터 출발했다지요.
덕분에 물안개가 가득한 새벽 아름다운 언덕에서
일출도 볼 수 있었어요 :)

두 여자와 아이들의 주말여행

빠이 인 러브

유명한 여행지인 만큼 락의 오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많다며
산 건너 강 건너 구석구석을 소개해주셨어요.
대나무 통통배를 타고 동굴탐험도 하고,
온천수가 흐르는 계곡에도 가구요 ☺

두 여자와 아이들의 주말여행

빠이 인 러브

관광지로 유명해지고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살던 주민들은 많이 떠나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빠이이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간 여행에 가슴 벅찬 주말을 보냈답니다.
빠이의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는
12월호에서 더 나눌까 합니다.

논매는
라온아낙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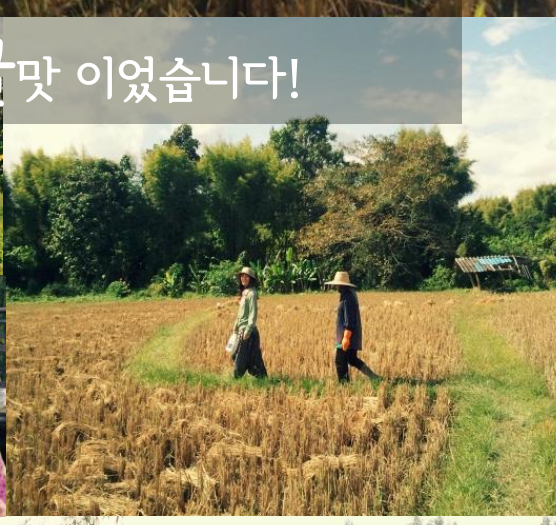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주말에는 보통
부모님의 일을 돕거나 학교에서 학생들과 축제준비, 미술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보내곤 하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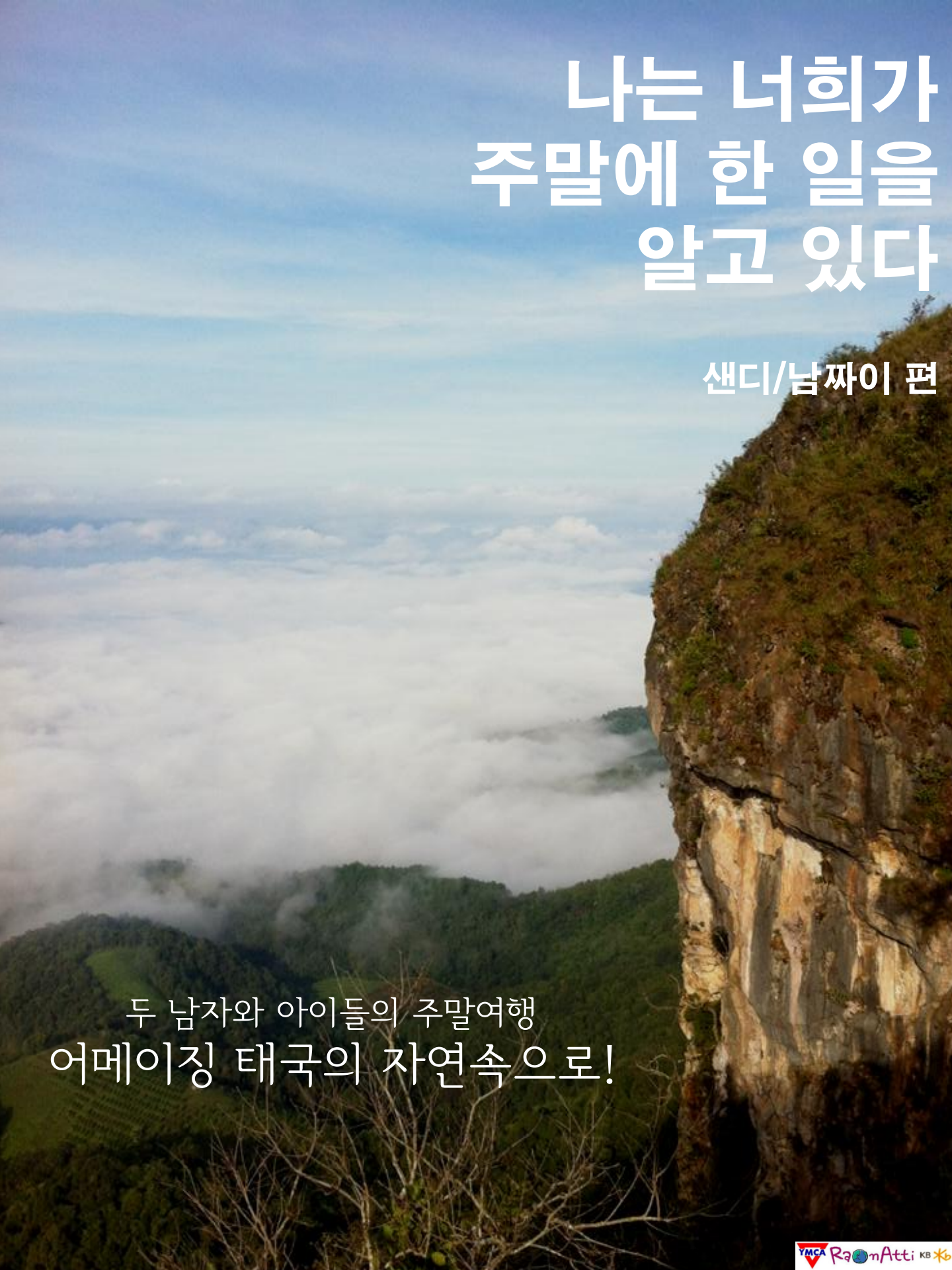
추수가 한창인 요즘,
락과 임은 엄마아빠를 도우러 주말에 논으로 갔답니다.
뜨겁고 뜨겁고 뜨거운 태국의 태양아래서 우리가 먹는 밥이
아~이렇게 힘들게 땀 흘려 얻어지는 거였구나,
깨달았다지요.

논매는
라온아낙네들

같은 날 다른 논에서 샌디도 엄마와 논농사를 도왔는데요,
아쉽게도 사진으로 기록하지 못했다고 꼭 적어달라고 하네요.

여튼, 이 날의 점심 밥은 정말 꿀맛 이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주말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샌디/남짜이 편
두 남자와 아이들의 주말여행
어메이징 태국의 자연속으로!

놀라운 태국의
자연 속으로!

언제? 11월 25일 황금주말

어디로? Mon Eung A 산과
Mork Fa 폭포

누가? 샌디, 남짜이, 비아(샌디 동생)
똔마이(남짜이 동생),
아이, 쪼, 모스

끝없이
이어진 길을
♬

열심히 올라갔는데…

놀라운 태국의
자연 속으로!
이 뻐~♪
Mon Eung A 산, 정말 아름답죠?

놀라운 태국의
자연 속으로!

지금 저희는 해발 1400M지점에 서있습니다.
약 두 발짝 뒤에 깎아지른 절벽이 있습니다만…
무섭지 않아요•••정말로요…

그리고 이곳!

Mork Fa 폭포!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부터 일어나 피곤하기도 했지만
자연의 압도적인 광경에 피곤함이 싹 가셨습니다.
주말마다 할 일이 생겨 동생들과 추억을 만들지 못해
정말 아쉬웠었는데 정말 행복했답니다 ☺

생각나눔

그래요 생각을 나눠요

마을에 들어오기 전과 후, 생각의 변화가 있나요?

샌디: 이 마을이 오가닉팜이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아직 오가닉에 대한 내용을 찾지 못했어요. 람빵에서는 오가닉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려고 정보를 주고 오가닉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했는데 이곳에선 우리가 직접 그런 내용들을 알아내고 활동도 찾아서 해야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락: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마을을 꾸미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생각했던 것 보다 엄청 클 뿐만 아니라 팀원 모두가 다른 마을에 살고 있어서 두 달 동안에 그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로 범위를 좁혔어요.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미화작업을 생각했지요. 그래서 방과후 미술교실을 열어 어떻게 해야 학교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남짜이: 전 기수 단원들에게 듣고 상상한 만큼 시골 같지 않아서 놀랐어요. 아이들의 반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학교나 집에서 와이파이가 돼요. 아이들은 방과 후면 컴퓨터 게임을 하고 페이스 북을 해요. 기대했던 경험을 못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생활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덜해 좋아요.

임: 람빵의 꽈우끼유같은 마을을 생각했는데 학교와 마을이 너무 멀어서 놀랐어요. 저는 학교 안에 살아서 마을과 학교를 이을 수 있는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무리가 있어 학교 안에서 기숙사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어요. 또 학교 안에 있는 환경적이나 경제적인 것 등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람빵에선 일주일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이, 빨리 배우려고 했는데 이곳에선 더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길 바래요?

샌디: 집이 나누어져 있어 비아(샌디의 첫번째 남동생)와 단 둘이 살아요. 비아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서 그 시간을 줄여주려고 컴퓨터 하는 시간에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컴퓨터를 통해 한국을 알려주고 있어요. 비아가 호스트 신청을 했다는데 비아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또 엄마가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더 배우고 싶어요.

락: 저도 부모님의 집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할머니와 동생 두 명과 살고 있답니다. 할머니는 자식을 여섯 명이나 두셨지만 현재 아버지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손주들도 다 바빠서 할머니는 늘 혼자 계세요. 동생들도 할머니에게 무관심 하구요. 제가 한 달 동안 느낀 건 가족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들 사이에서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짜이: 다른 팀원들에 비해 유복하고 안정적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집에 제가 불안정적인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언 갈 하는 것보다 가족에 녹아 들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큰 형 같은 느낌의 관계를 유지 할 거예요.

임: 엄마가 핸드 크래프트 선생님이신데 아이들이 일일마켓이나 수공예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내 또 다른 가족인 기숙사아이들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언어실력이 부족해 아이들과 학업상담과 같은 어려운 대화를 나누기엔 무리가 있어 아이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이나 태국의 상황, 한국의 상황,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것들이요. 그리고 아이들의 대부분이 소수민족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몽이나 카렌같은 부족의 전통이나 언어들을 배우고 있답니다.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샌디- 아이들이랑 친해져서 한국에 가서도 연락을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락-학교에 미술수업이 아예 없어요. 제가 받은 정규 미술시간은 일주일에 고작 두 번이지만, 방과후 미술교실과 더불어 그림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기술을 길러주는 수업을 해주고 싶어요. 또 앞으로 미술에 대한 꿈이 있는 아이들에게 미술을 작게나마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남짜이-아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려워요. 잘하는 선생님보다는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보다는 좋은 한국형이 되어 한국에 가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임- 텀블러 쓰기나 에코백 만들기 같은 일상에서 실천하는 소소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태국이나 마을, 학교에 대한 점들을 학교 선생님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도 선생님들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기숙사에 사는 소수민족 아이들을 통해 그 부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성적 소수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태국에 오고 학교나 마을, 기관 등 어느 장소에 가도 한국에선 성적소수자라 불리는 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태국에 오기 전 국내 훈련 때 다른 팀들과 의견을 공유했던 내용이기도 했고 우리 팀이 생각했던 엔드 포벌티 캠페인, 빈곤의 대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와 달라진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샌디: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에서 편하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들을 대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조심스럽고 제가 그 대상이 되는 건 상상이 안돼요.

락: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태국사람들이 이것을 틀리거나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성적 소수자인 그들이 태국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사회 구성원 중 하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놀랍고, 그들의 개방적인 분위기가 부럽기도 해요.

임: 주변에 정말 많아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지 않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도 많은데 한 남자아이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간다며 자랑을 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커플사진을 올리기도 해요. 내가 놀랍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태국에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한국에서 그들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놀란 날 보니 그게 아니었나봐요. 표현이 자유로운 나라 태국, 그 분위기에 저 또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남짜이: 노코멘트

11월 한 달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 뭔가요?

샌디: 엄마 일을 도와주러 논에 갔을 때요. 일을 안 시켜줘서 일을 할 순 없었지만 그 곳을 보면서 기술발전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기계가 있으면 일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놓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음식을 먹고 이런 점들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농업과 기술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기억에 남아요.

락: 동생들이 숙제를 하러 인터넷 카페에 가고 할머니와 집에 단 둘이 남아있던 적이 있어요. 그 때 할머니와 둘이서 마당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할머니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으면서 옆에 있어야겠다 생각했어요.

남짜이: 남똑먹파라는 폭포에 갔던 거요. 간만에 뭔가가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이들과 샌디와 함께 어울려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기억에 남길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서 좋았어요. 아쉬운 점은 라온아띠 4명이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임: 저는 락 가족과 갔던 빠이요.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답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어요. 기숙사 다수의 아이들이 빠이에 살아 그 곳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방문하게 되어서 좋았어요. 아쉬운 점은 빠이가 관광지다 보니 물가가 비싸 빠이에 사는 주민들은 생활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집 렌트, 문화의 변질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다고 해요. 제 가족인 기숙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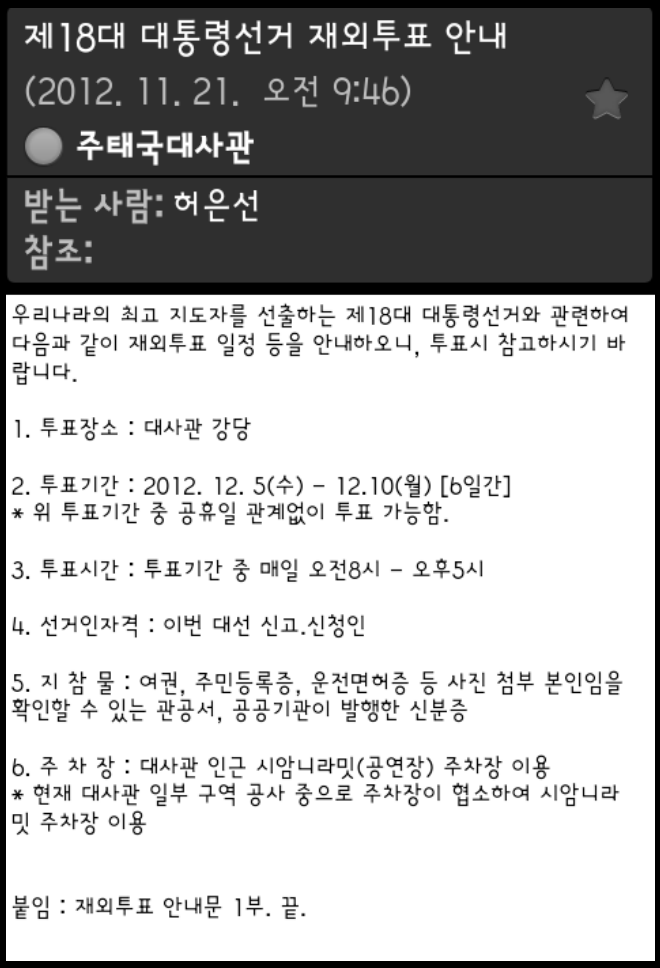
산파양 마을에서의 이야기는
12월에도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보너스트랙

350ppm 캠페인의 연속!
학교에서 예쁜 도시락을 선물 받아서,
매일매일 도시락을 사용한답니다.

중간평가 때 받은 피드백을 통해
매일매일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미션임파서블?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안내
(2012. 11. 21. 오전 9:46)
주태국대사관
받는 사람: 허은선
참조: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외투표 일정 등을 안내하오니, 투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표장소 : 대사관 강당

2. 투표기간 : 2012. 12. 5(수) - 12.10(월) [6일간]
* 위 투표기간 중 공휴일 관계없이 투표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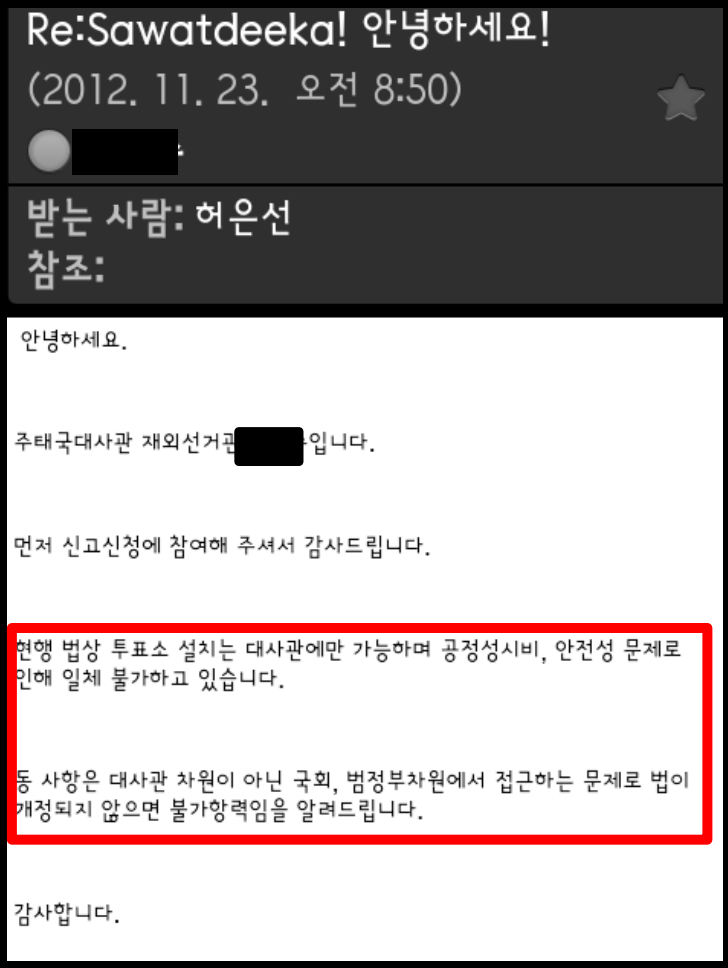
3. 투표시간 :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8시 - 오후5시

4. 선거인자격 : 이번 대선 신고.신청인

5. 지 참 물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첨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6. 주 차 장 : 대사관 인근 시암니라밋(공연장) 주차장 이용
* 현재 대사관 일부 구역 공사 중으로 주차장이 협소하여 시암니라밋 주차장 이용

붙임 : 재외투표 안내문 1부. 끝.



Re:Sawatdeeka! 안녕하세요!
(2012. 11. 23. 오전 8:50)
[redacted]
받는 사람: 허은선
참조:

안녕하세요.

주태국대사관 재외선거관[redacted]입니다.

먼저 신고신청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행 법상 투표소 설치는 대사관에만 가능하며 공정성시비, 안전성 문제로 인해 일체 불가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대사관 차원이 아닌 국회, 범정부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항력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재외투표 안내메일을 받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투표장소가 저희가 있는 치앙마이에서
왕복 26시간 걸리는 방콕이라서 일정상 무리가 있어
어떻게 하면 선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 태국대사관에 태국의 제 2도시인 치앙마이에 있는 명예영사관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간이 시설을 마련해주세요!라고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했지요.
하지만 공정성 시비, 안전성문제로 일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치앙마이의 한국인 거주자 약 6천명,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MCA RamAtti KB

선거 안하면 5년뒤에 돌아갈겁니다.

선거하러 방콕가다 너무 멀어 길거리에 나앉은 라온아띠